

## 해방기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과 노래의 정전화\*

남 영 희\*\*

### 차 례

- |                                   |                        |
|-----------------------------------|------------------------|
| I. 들머리                            | 1. 창작동요 전통의 계승         |
| II.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체재와 분류      | 2. 새로운 노래의 창작과 국민만들기   |
| 1. 『노래모음』의 체재와 발간 의의              | 3. 해방가요·의식곡의 되새김과 기념하기 |
| 2. 『노래모음』 수록곡의 분류와 특징             | 4. 대중가곡의 재현과 정서의 소환    |
| III.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수록곡의 정전화 양상 | 5. 외국노래와 서구 지향의 번역     |
|                                   | IV.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부산 음악인 김학성이 1950년 발간한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구성과 체재를 통해 노래의 정전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까지 발간된 노래책 23권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286).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해방기 음악교재 25권을 실증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노래모음』은 예술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음악교양의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해방기 부산음악 사회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체이며, 윤이상, 이상근과 같은 지역 작곡가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수록곡을 식민지시대 창작동요, 해방기 창작동요, 창작가곡, 가요, 외국곡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동심의 회복, 새로운 국가와 국민만들기, 역사의 되새김과 기념하기, 민족적 정서의 소환, 서구지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노래가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래의 정전화는 국가와 사회가 그 시대의 의식과 정서를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전화된 노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구성했다. 이러한 점에서 근현대 음악문화사에서 정전화의 양상과 논리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학성, 부산, 해방기,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정전, 정전화

## 1. 들머리

김학성(金鶴成, 1911~1958)은 식민지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부산 음악사회를 주도한 음악인이다. 일본 동경에 소재한 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악대학)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동경 쇼치쿠[松竹]관현악단과 토호[東寶] P.C.L.관현악단, 북경교향악단, 고려교향악단 등 국내외 다양한 연주단체에서 활동했다. 1947년 김학성이 설립·운영한 부산관현악단은 해방 후 최초의 관현악단이었으며, 1948년 결성한 부산현악사중주단 역시 최초의 현악 앙상블 단체였다.<sup>1)</sup> 음악교육에도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1) 제1바이올린 김학성, 제2바이올린 임문규, 비올라 전성태, 첼로 백경준으로 구성

실천했다. 식민지시대부터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했던 그는 1948년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부산음악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한편, 『특선가곡집』(1948)<sup>2)</sup>과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1950)을 발간하여 음악교양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부산음악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8년 제2회 부산시문화상에 추서되었다.<sup>3)</sup>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편찬은 해방 이후 교육수요의 급속한 팽창과 음악교재 발간의 맥락 속에 이해할 수 있다. “악보출판은 원래 난점이 많은 데다 우리나라의 인쇄시설로는 정상적 악보출판은 거의 불가능”<sup>4)</sup>했던 해방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음악인의 노래집 발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사실 해방기 부산에서는 김학성의 노래 선집 외에도 초등용 음악교재 『노래공부』 1학년~6학년(전 6권, 1949,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 중등용 음악교재 『중등가곡집』(1948, 경남음악교육연구회)이 발간되었다. 초·중등 음악교재와 노래집이 고루 발간된 셈이다. 이점에서 김학성의 『노래모음』은 해방기 부산음악사회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실체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래모음』에는 윤이상, 이상근과 같은 지역 작곡가의 알려지지 않은 곡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노래모음』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 처음으로 다루어진 연구에서도 발간 취지와 수록곡 목록이 간략하게 제시되었을 뿐이다.<sup>5)</sup> 지금껏 해방기의 음악교과용 도서 연구와 자료 해제작업이 진행되어 한국음악사 서술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sup>6)</sup> 지역에서 발간

되었다. 『부산현악사중주단 결성』, 『문예신문』 53호, 1948.4.

2) 『음악신간 소개』, 『음악주보』 제57호, 음악주보사, 1948.2.1, 4면. 현재 이 책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 부산음악학교에 관해서는 고(稿)를 달리해 논할 것이다.

4) 태양사, 『교열감상』, 나운영 편, 『어린이노래책』 제1집, 광문사, 1946.

5)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21, 249-253쪽.

6) 김기복,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육 정책과 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권혜근,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중등음악교본』

한 교재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sup>7)</sup>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자료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노래모음』은 초등학교를 독자로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동요뿐만 아니라 창작가곡과 가요, 외국곡 등 폭넓은 영역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래의 정전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구성과 체재를 살펴보고, 수록곡 분석을 통해 노래의 정전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까지 발간된 노래책 23권<sup>8)</sup>과 해방기 음악교재 25권<sup>9)</sup>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래모음』의

1, 『중등음악교본』 2의 해제, 『근대서지』 제7호, 2013, 166-177쪽; 권혜근, 「해방 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초등 노래책』과 『남녀중등음악교본』 1, 2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3호, 한국음악사학회, 2014, 5-35쪽; 박사라, 「음악교과서와 악전에 나타난 음악용어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63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논문, 2014; 권혜근,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 『중학음악교본』 제3권의 해제」, 『근대서지』 제14호, 2016, 276-291쪽; 이경분,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해제」, 『근대서지』 제16호, 2017, 340-348쪽.

7) 이유로, 「대구 발행 『중등 음악교과서』 해제」, 『근대서지』 제19호, 2019, 323-334쪽; 남영희, 앞의 논문, 233-249쪽.

8) 흥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29), 하편(1933) (이상은 난파기념사업회의 1991년 영인본 참조), 홍영후 『통속가곡집』(1917), 『도레미창가집』(1919) (이상은 『근대서지』 10호에 수록된 영인본 참조), 김기주 『조선신동요선집』(1932) (이상은 류덕제의 2020년 단행본 참조), 조선동요연구협회 『조선동요선집』(1929), 푸르레타리아동요집 『불별』(1931), 『윤석중 동요집』(1932), 부내운 『유희창가집』(1936), 차사백·이영보 『표정유희창가집』 1~3집(1936~1937), 강신명 『아동가요곡선삼백곡집』(1938), 윤이상 『동요작곡집』 제1집(1938),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1938), 조선국민음악연구회 『해방기념 애국가집』(1946), 아협동요연구소 『조선동요백곡선』(1946),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1948), 노래동무회 『노래동무』 1 (1948), 박태준 『동요작곡집』(1949), 윤복진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1949), 이승학 『세계명가백곡집』(1949), 윤석중 동요집 『어깨동무』(1949).

9) 군정청 문교부 『초등 노래책』 제1·2학년 소용(1946), 문교부 『초등 노래책』 1학년 소용~3학년 소용(1948, 3권),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 『노래공부』 2, 5, 6권(1949, 3권),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계정식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교회음악연구회(1946), 김신태 『여자중등음악교본』 상~하

수록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노래가 창작·향유되는 과정과 정전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의 체재와 분류

### 1) 『노래모음』의 체재와 발간 의의

『노래모음』을 엮은이는 김학성이며, 인쇄일자는 1950년 5월 10일, 발행일은 5월 15일이다. 판형은 사육배판 정도로 18.9cm\*25.8cm다. 출판 환경이 열악한 해방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도서의 크기에 속한다.<sup>10)</sup> 매수는 앞표지와 뒤표지를 포함한 64매이며, 수록곡 수는 100곡이다. 1~58쪽에 악보가 수록되어 당시 발간된 교재로서는 분량이 많은 편이다.<sup>11)</sup> 발행자는 박노옥(朴魯玉), 발행처는 서울시 을지로 6가 21번지 소재 향토문화협회이며, 부산시 부평동 2가 2번지 향토문화협회 부산지부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향토문화협회는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으나 명칭이 유사한 몇몇 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양성봉 지사는 초량에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몇을 초대한

---

(1947, 3권), 전국교육음악협회 『중학음악교본』(1947), 계정식 『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7), 오창진 『중등음악』(1947), 교육음악연구협회 『중학음악교본』 제2권(1948), 이승학 『중등음악교본』 제2~3권(1948, 2권).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중등가곡집』(1948),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1949), 최희남 『중등음악교본』 2(1950), 국민음악연구회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3권(1950, 2권).

10) “인쇄시설은 활판이 주종을 이루었고, 기계도 4·6전 반절이거나, 국전이 대부분이었다. 4·6전지 활판기계는 거의 없었고, 오프셋 기계는 손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대의, 『나와 김인정 교과서』, 중앙출판공사, 2002, 29쪽.

11) 이 무렵 음악사에서 출판한 『박태준 동요작곡집』(1949)은 32쪽이며,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판한 『조선동요백곡선』 상권(1946)은 25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기에 금(금수현-필자)도 갔다. 이상룡 내무국장, 김동선 사회국장과 우신출, 김재문 등 문화인도 모였다. 독립극장 시대부터 아는 사회국장은 금을 상좌에 앉으라고 했다. 식사 후 ‘향토문화회’라는 것을 만들자는 지사 제안에 합의를 봤다.<sup>12)</sup>

② 이 무렵 경상남도지사로 있던 양성봉이 사회부장관(농림부장관의 잘못으로 추정-필자)으로 가 있었는데 무슨 정치 바람인지 갱질(경질-필자)이 되어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는 향토문화회라는 단체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 이 모임을 소집하면서 이번의 장소는 금수현의 집이었다.<sup>13)</sup>

③ 1946년 10월, “향토예술문화의 출판, 고자증(考者證), 실연(實演) 등”의 “연구단체”로 조직, 죽첨정(竹添町) 2정목 2번지, 대표자는 김중현(金重鉉)이다.<sup>14)</sup>

④ 향토음악에 대한 예술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철마 김중현(金重鉉) 씨를 중심으로 향토예술문화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첫번 사업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동 12일까지 덕수궁에서 전국향토예술경연대회를 열기로 되었다.<sup>15)</sup>

인용문 ①과 ②는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금수현의 회고다. 여기에 따르면 양성봉<sup>16)</sup>이 관료와 문화예술인을 규합하여 부산경남 지역에서 향토문화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③과 ④는 화가 김중현을 중심으로 결성한 향토예술문화협회에 관한 신문기사다. 이 두 단체에 관한 다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 어떤 활동을 얼마나 지속하였

12)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132쪽.

13) 금수현, 위의 책, 155쪽.

14) 『향토예술문화협회』, 『자유신문』, 1946.10.22, 2면.

15) 『문화소식-향토예술경연 래월(來月) 8일 덕수궁서』, 『한성일보』, 1946.10.30, 2면.

16) 초대 부산시장(1946.1.24~1948.11.6), 경남지사(1949.11.15~1953.10.7), 농림부 장관(1953.10.7~1954.5.5)을 지냈다.

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결성 및 활동 시기, 소재지 등에서도 『노래모음』 발행처 향토문화협회와의 관련성을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향토문화협회는 향토문화와 관련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국에 지부를 둔 조직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래모음』의 첫머리에는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수록하여 교재 발간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좋은 노래가 없는 나라는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될 여러분은 씩씩하고 힘차게 이 나라를 빛낼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을 짠 사람으로 느끼는 몇 가지가 있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책은 너무 단순하고 많은 책을 보면 대개 이십곡조 내지 삼십곡조로 짠 것이 보통인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노래는 도저히 한 책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학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재미스러운 노래를 자전처럼 볼 수 있는 “노래모음”을 내놓기 위하여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동서양을 통하여 유명한 여러 음악가 선생님들이 지은 동요 100곡집을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노래모음이라도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래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이 이상 더 다행은 없습니다. 4283년 4월 12일 찬사람 올림.<sup>17)</sup>

인용문에서 김학성은 “좋은 노래”를 곧 “문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 나라를 건설”할 독자들이 “ 씩씩하고 힘차게 이 나라를 빛낼 ” 노래를 불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노래의 역할이 “새 나라 건설”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지향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즈음 발간된 노래책에는 대개 20~30곡의 노래가 수록되었지만, 이 책은 하고 싶은 노래를 다 찾아볼 수 있는 “자전(字典)”을 지향한다. 동서양의 “유명한 여러 음악가 선생님들이 지은” 곡 가운데 발간 목적에 맞는 곡을 선곡하기 위해 대단히 폭넓은 자료를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 김학성,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서울: 향토문화협회, 1950.5.15.

크게 창가집, 민족주의/사회주의 계열 동요집, 창작가곡집, 세계명곡선집, 해방가요, 음악교과용 도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시대 창가집이다. 근대계몽기부터 식민지시대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비단 창작동요만이 아니었다. 민간에서 구비전승되어온 전래동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유입된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와 서양 민속곡의 선율은 계몽창가와 애국창가로 변모했다. 멜로디는 같지만 계몽의식이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이 노래들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국내는 물론 하와이, 간도, 연해주 등 한인 집단에 널리 확산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학교에서도 창가가 널리 유통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차부터 4차 교육령시기 동안 『신편창가집』(1914), 『보통학교창가집』 1~4학년(총4권, 1920), 『초등창가집』 1~6학년(총6권, 1939~1941), 『우타노홍』(1942) 등 19종의 교과서를 발행했다.<sup>18)</sup> 여기 수록된 500여 곡의 노래는 제국주의 이념 전파와 황국신민 양성을 목표로 집단적·강제적 방식으로 불렀다.

유희창가도 빼놓을 수 없다. 유치원 교육을 주도하던 이화보육학교와 중앙보육학교에서는 미국인 선교사 브라운리(C.G.Brownlee, 富來雲), 박봉애, 차사백과 이영보에 의해 유희창가집이 발간되었다.<sup>19)</sup> 유치원 교육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정 집단에서만 향유되었지만 유희창가는 서양의 마더 구스(Mother Goose) 라임이나 창작동요 확산의 한 매체이기도 했다.

둘째, 1920년대부터 이어 온 동요창작의 전통에 따라 발간된 창작동요집, 동요선집, 그리고 일본에서 발간된 동요 관련 서적이다. 두루 알다시

18) 김순전 외 여럿, 『제국의 식민지 창가-일제강점기 <창가>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2014, 11쪽.

19) 다음과 같은 책이 발간되었다. 차사백, 『울동유희곡집』 제1집, 영창서관, 1929; 부내운 편, 『유희창가집』, 이화유치원, 1930.11.25.; 박봉애, 『유희창가집』, 이화보육학교, 1933; 차사백·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제1집, 중앙보육학교, 1936.3.20; 차사백·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제2집, 중앙보육학교, 1936.7.26.; 차사백·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제3집, 중앙보육학교, 1937.



피 우리나라에서 동요(童謠)란 글자 그대로 ‘어린이’와 연관된 노래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동요는 식민지 상황으로 근대를 건너온 우리의 굴곡진 역사와 민족 정서를 표상했다.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색동회의 어린이문화운동과 『어린이』의 창간은 이른바 동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윤석중, 윤극영, 박태준, 정순철, 김성태, 이일래, 윤이상 등은 단독으로 동요집을 발간하였으며, 조선동요연구회, 김기주의 동요선집이 발간되었다. 악보가 수록된 동요곡집으로는 홍난파와 강신명이 각각 100곡집과 300곡집을 발간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10년대 후반 민주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교육이념의 확산에 따라 아동문화운동이 촉발되었다. 그 성과로 동요창작과 작법, 일본의 전래동요, 다른 나라의 동요와 동화, 동요와 교육 등 동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발간된 관련 서적들이 적지 않게 유입되었다.<sup>20)</sup>

해방 이전에는 창작동요의 전통과 더불어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에서는 『신소년』, 『별나라』, 『불별』 등 매체를 통해 계급주의 동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sup>21)</sup> 김학성이 1947년 창단한 부산관현악단은 1948년 6월 9일~14일 간 마산, 통영, 진해 3개 도시에서 각각 2회씩 총 6회의 순회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다.<sup>22)</sup> 이 행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좌파

20) 반야문삼(飯野文三), 『이태리의 동화와 동요(伊太利의童話と童謠)』, 동경: 대성당, 1922; 안전신달(安田信達), 『세계동요선집』, 동경: 대법관, 1922; 교육학술연구회 편, 『동화와 동요(童話と童謠)』, 동경: 동문관, 1922; 반야문삼(飯野文三), 『독일의 동화와 동요(獨逸의童話と童謠)』, 동경: 대성당, 1923; 야구영길(野口英吉), 『동요와 아동의 교육(童謠と兒童의教育)』, 동경: 이데아서원, 1923; 죽우조풍(竹友藻風) 편, 『일본지방동요집』, 동경: 근대사, 1930 등을 들 수 있다.

21)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프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8호, 2003, 201-232쪽; 이순욱,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37집, 2004, 243-268쪽; 이순욱,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11-36쪽; 정진현, 「1920년대 『별나라』 동요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집, 2015, 105-141쪽; 최윤실, 「프로레타리아 동요의 이론과 노래에 관한 소고」, 『음악과 문화』 39집, 2018, 135-165쪽.

22) 「(광고)삼도시(三都市) 순회 부산관현악단 대연주회」, 『대중신문』, 1948.6.9, 1면.

언론 대중신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학성과 대중신문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학성이 계급주의 성향의 동요를 검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창작가곡들이다. 홍난파, 안기영, 박태준, 김순남 등의 창작가곡은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까지 널리 불렸으며 단행본 작곡집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홍난파는 『세계명작가곡선집』(1926)에도 자신의 가곡을 수록하였으며 『조선가요작곡집』(1933)을 발간하였다. 박태준과 김순남도 각각 『가곡집』(1927), 『자장가』(1948)를 발간하였으며, 안기영은 『작곡집』 제1집(1929), 제2집(1931), 제3집(1936)을 연속해서 발간하였다.

넷째, 이른바 ‘세계명곡’ 선집들이다. 악우회, 현제명, 홍난파, 독고선 등을 중심으로 1920~30년대 세계명곡선집이 발간되었으며, 해방기에도 이승학이 『세계명가백곡집』을 발간하였다.

다섯째, 해방가요들이다. 해방이 되자 새로운 노래가 필요했다. 식민지 말기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우리말과 글을 잃었던 암울한 시대를 겪었기에 노래는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고취시키고 잃어버린 민족 정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다. 해방과 독립, 되찾은 조국의 산하, 새 나라와 관련된 ‘애국적’ 노래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으며, 기쁨과 희망의 환타지 속에 단숨에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방기에 발간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들이다. 이 시기 초·중등 교과서에는 창작동요와 해방가요, 창작가곡, 외국곡 등이 두루 수록되었기 때문에 김학성이 크게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방기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와 초등학생용 노래집, 중등학교 음악교재들이 잇따라 발간되었다. 경남음악교육연구회의 『중등가곡집』(1948), 경남초등교육연구회·김원여의 『노래공부』 1~6(전6권, 1948), 그리고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1950), 최술문의 『음악이론 교본』(1948) 등이 그것이며, 동래중(현 동래고)과 경남여중(현 경남여고)에서는 등사본 교재를 제작하였다. 음악전문매체 『음악주보』에도 악보

와 음악용어 등이 수록되어 교재로 활용되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유학을 마친 전문음악인들이 음악사회를 구성하여 연주회, 음악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노래모음』의 발간은 이러한 지역 음악사회의 역량과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의 음악수업 부교재로 사용되거나 음악교양을 확산하는 핵심매체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노래모음』의 발간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폭넓게 유통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 2) 『노래모음』 수록곡의 분류와 특징

김학성은 『노래모음』을 구성하면서 노래를 특별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다. 별도의 장으로 나누지도 않았으며 노래에 일련번호도 붙이지 않았다. 대체로 한 페이지에 두 곡씩 수록하고 있는데,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소 긴 곡 아래에는 짧은 곡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동요가 중심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해방가요나 가곡, 외국곡이 수록된 형태다. 특히 삽화의 활용은 효과적이다. 각 페이지마다 노래의 내용에 걸맞은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으며 독자의 참여와 재미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수록곡을 크게 작곡가의 국적에 따라 한국곡과 외국곡으로 나누고, 한국곡의 경우에는 창작 시기와 장르(동요, 가곡, 가요)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곡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작사자와 작곡가를 순서대로 표기한 것이며, \*표시는 『노래모음』에는 누락되었으나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 ① 전래동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전래동요, 나운영 편곡), <달아 달아>(\*전래동요) (2곡)

## ② 식민지시대 창작동요

<오빠생각>(최순애, 박태준), <산바람 강바람>(윤석중, 박태현), <어깨동무>(\*윤석중, 미상), <어린 음악대>(\*김성도, \*김성도), <산새>(목일신, 김성태), <반달>(윤극영, 윤극영), <고추 먹고 맴맴>(윤석중, 박태준), <동리의원>(김기환-\*윤복진 필명, 홍난파), <누가 누가 잠자나>(\*목일신, 박태현), <낮에 나온 반달>(윤석중, 홍난파), <봄날>(박영하, 박태철), <하늘구경>(\*윤극영, 윤극영), <설날>(\*윤극영, 윤극영), <진달래>(\*엄홍섭, \*정순철), <할미꽃>(\*홍난파 편곡, 윤극영), <어머니 가슴>(박을송, 홍난파), <돌다리>(신고송, 홍난파), <해지는 강변>(\*목일신, 윤이상), <도레미파>(홍난파, 홍난파), <하모니카>(\*윤복진, 홍난파), <강아지래요>(김성도, 김성태), <고드름>(버들쇠-\*유지영 필명, 윤극영), <밝안 가락님>(\*정상규, 홍난파), <작은별>(\*홍난파, 홍난파), <조희배>(\*김광윤, 홍난파), <푸른 숲을>(\*목일신, 윤이상), <기러기>(\*윤복진, 박태준), <물새발자욱>(\*윤복진, 박태준), <부슬비>(최계락, 이상근), <나비노래>(이은상, 이홍렬), <깜박깜박>(윤복진, 박태준) (31곡)

## ③ 해방기 창작동요

<기차>(홍은순, 박태현), <새나라의 어린이>(\*윤석중, \*박태준), <엄마 생각>(홍은순, 한샘), <금실비 은실비>(\*노래동무회), <나는 잘해요>(미상), <누가 제일 잘하나>(미상), <봄비>(\*홍은순-추정, 박태준), <별나라>(홍은순, 한샘), <불조심>(홍은순, 한샘), <줄넘기>(홍은순, 김성태), <전선줄 정거장>(홍은순, 박태준), <구름>(홍은순, 김성태), <스케팅>(미상), <봄이 왔다고>(홍은순, 윤극영), <어린이 행진곡>(신영숙, 윤용하) (15곡)

## ④ 기타

<시계>(\*김귀주, \*김영환), <시내물>(미상), <운직>(미상, 박순애), <저녁 바다>(미상), <눈>(미상), <달마지>(박월난, 이민상), <어서 나가세>(페이지 결락), <줄업식 노래>(페이지 결락), <자장가>(페이지 결락), <어머니 사랑>(미상), <김치 깍둑이>(미상) (11곡)

⑤ 창작가곡

<꽃밭>(\*권중찬, 안기영), <물새>(이은상, 안기영), <고향 생각>(\*정사인, \*정사인), <미풍>(이은상, 박태준), <그리운 강남>(김석송-\*김형원으로 추정, 안기영), <성불사의 밤>(이은상, 홍난파), <금강에 살으리랏다>(이은상, 홍난파), <삼살개>(\*미상, \*박태준 추정), <무궁화>(\*박세영, 안기영) (9곡)

⑥ 해방가요와 의식곡

<애국가>(미상, 안익태), <우리말 우리글로>(미상, 김성태), <독립행진곡>(박태원, 김성태), <한글노래>(\*이극로, 채동선), <앞으로 나가자>(김용호, 박태준), <어린이날>(어린이날전국준비위원회 선가선곡), <소년소녀 행진곡>(최선, 김형근), <건국의 노래>(\*김태오, 나운영), <응원가>(이원수, 김성태), <삼일운동의 노래>(박종화, 김순애), <문자 보급가>(\*이은희, \*구왕삼) (11곡)

⑦ 외국곡

<종달새>(미상, \*미국 노래), <클레멘틴>(\*박태원, 미국노래), <피꼬리>(\*홍난파, F. Hullur), <월계꽃>(\*윤기성, 슈베르트), <기쁨의 노래>(화암-\*박용구 필명, 베토벤), <고향의 어머니>(\*국정효, J.P. Ordway), <모차르트의 자장가>(미상, W.A.Mozart), <로렐라이>(\*독고선, \*P.F.Silcher), <빠꾸기>(\*박용구, 슬로바키아 민요), <즐거운 나의 집>(\*김재인, H.R.Bishop), <망아지>(풍강, J.W.Elliot-추정), <불어라

봄바람>(홍난파, J.E.Spillman), <인사>(풍강, H.프레이스—썸슨<sup>23)</sup>),  
 <시골 음악대>(홍난파, C. M. von Weber), <수남이 바보>(미상, \*J.W.  
 Elliot), <자장가>(홍순혁, F.Schubert), <개선행진곡>(미상, G.Verdi),  
 <빠죽새 왈츠>(\*한갑수, J.E.Jonasson, 김학성 편곡), <양춘가절>(미상,  
 헝가리 민요), <즐겁게 부르자>(미상, W.A.Mozart), <이 몸이 새라  
 면>(\*안병원, 독일민요) (21곡)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김학성,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수록곡 분류

| 동요   |               |             |    | 창작가곡 | 가요<br>(해방가요,<br>의식곡) | 외국곡 |
|------|---------------|-------------|----|------|----------------------|-----|
| 전래동요 | 식민지시대<br>창작동요 | 해방기<br>창작동요 | 기타 |      |                      |     |
| 2    | 31            | 15          | 11 | 9    | 11                   | 21  |
| 100  |               |             |    |      |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②식민지  
 시대 창작동요로, 이는 1920년대부터 이어 온 동요의 전통 속에서 창작  
 된 노래들이다. 다음으로 ⑦서양의 노래나 베토벤, 모차르트, 베버 등 클  
 래식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외국곡, ③해방기에 창  
 작되었거나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요, ⑥해방 직후 폭넓게 창작·유  
 통된 해방가요와 의식곡, ⑤창작가곡 순이다. 구비전승 노래이거나 그것  
 을 편곡한 ①전래동요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④기타는 필자가 대  
 상텍스트로 삼은 『노래모음』의 페이지가 결락된 3곡을 포함하여 창작시  
 기가 불분명한 노래다.

노랫말을 지은이로는 윤석중, 윤복진, 목일신, 홍난파, 이은상 등 전통  
 적인 창작동요 작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홍은순이 가사를 지은 노래

23)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의 수가 가장 많다. 작곡가도 윤극영, 박태준, 홍난파 등 주요 작곡가들과 더불어 김성태, 박태현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었다. 지역성도 두드러진다. 경남 지역문인 정상규·최계락(진주), 이극로(의령), 김용호·이은상·이원수(마산), 신고송(언양)을 비롯하여 작곡가 윤이상(통영), 이상근(진주)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특히 문화계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50년에 발간되었음에도 윤복진, 안기영, 신고송, 이극로, 박세영, 엄홍섭, 석송 김형원 등 계급주의 문인과 음악인, 한글운동가의 작품을 두루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애초에 김학성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이 아닌 음악 교양의 확산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학교 아동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예술로서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학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부를 수 있는 “재미스러운 노래”를 보급하고자 한 것이다. 기보 상에서 간략하게 멜로디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창작동요와 가곡, 외국곡 원곡에는 전주와 후주, 반주부가 제시되어 있지만 『노래모음』에는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윤이상 <푸른 숲을> 악보 비교

| 윤이상 <푸른 숲을> 전주~4마디 원본                                                               | 김학성이 수록한 윤이상 <푸른 숲을> 전곡                                                              |
|-------------------------------------------------------------------------------------|--------------------------------------------------------------------------------------|
|  |  |

전주와 반주를 빼고 수록했듯이 빠르기말, 나타냄말 등 악상기호를 제

시하지 않은 곡도 여럿 있다. 가령, <돌다리>, <종이배>의 “allegretto”, <푸른 숲을>의 “allegretto(유쾌하게)”, <밝은 가락님>의 “애상의 정으로”를 기재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이들을 생략한 것인지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누락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3절로 구성된 <고드름>을 2절까지만 제시한 것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곡의 형식은 1~2도막 형식의 짧고 간결한 곡, 장조의 곡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선율 진행도 그리 어렵지 않으며 <문자보급가><sup>24)</sup>를 제외하면 전곡이 정격종지로 끝맺고 있다. <표 2>와 <표 3>은 수록곡의 조성 과 박자를 분류한 것이다.

<표 2> 『노래모음』 수록곡의 조성

| 장조(Major) |    |                |    |    |   |                |                |   | 단조(minor) |   |   |   | 불명 |
|-----------|----|----------------|----|----|---|----------------|----------------|---|-----------|---|---|---|----|
| G         | C  | E <sup>b</sup> | F  | D  | A | A <sup>b</sup> | B <sup>b</sup> | E | a         | d | e | g |    |
| 22        | 14 | 13             | 13 | 11 | 6 | 4              | 4              | 4 | 2         | 1 | 2 | 1 | 3  |
| 91        |    |                |    |    |   |                |                |   | 6         |   |   |   |    |
| 100       |    |                |    |    |   |                |                |   |           |   |   |   |    |

<표 3> 『노래모음』 수록곡의 박자

| 2/4 | 8/6 | 3/4 | 3/8 | 4/4 | 변박(4/2-4/4) | 변박(6/8-4/4) | 5/4 | 불명 |
|-----|-----|-----|-----|-----|-------------|-------------|-----|----|
| 35  | 17  | 13  | 1   | 27  | 1           | 1           | 2   | 3  |
| 52  |     | 14  |     | 29  |             |             | 2   |    |
| 100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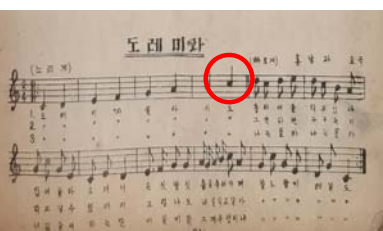
식자상의 오류나 악상기호의 누락 등 몇몇 오기가 없지 않다. 먼저 작

24) 『노래모음』에는 흥난파의 곡으로 잘못 수록되어 있다. <문자보급가>와 <한글 기념가>는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 당시 문자보급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1931년 1월 1일자 공모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신용하,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 운동』, 『한국학보』 3집, 2005, 112-113쪽.



곡가나 작사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다. <문자보급가>를 <문자보검가>로 표기하거나 안기영을 ‘악기영’, 흥난파를 ‘흥남파’로 기재한 것은 식자상의 오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자보급가>를 “흥난파 곡”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머니 가슴>의 가사 가운데 “비만숨 가슴”은 “비단숨 가슴”의 분명한 잘못이다. 또한 <은실비 금실비>의 원제목은 <금실비 은실비>다. <도레미파>에는 늘임표(Fermata, ♯) 기호, <김치깍둑이>에는 임시표, <스케팅>에는 도돌이표, <월계꽃>에는 박자표, <기러기>에는 썸여림표 디미누엔도(dimin., >)와 빠르게말 리타르단도(Ritardando) 표시가 각각 누락되었다. <깜박깜박>은 두 마디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디를 구분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그중 한 예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흥난파 <도레미파> 늘임표 생략

| 흥난파 <도레미파> 전주~12마디 원본                                                               | 김학성이 수록한 흥난파 <도레미파> 전곡                                                               |
|-------------------------------------------------------------------------------------|--------------------------------------------------------------------------------------|
|  |  |

이는 부주의나 실수, 지식의 부족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음악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다.<sup>25)</sup>

25)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단 『노래모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947년 박태현이 출판한 『어린이 노래책』에 관해 작곡가 이진우는 음악상의 “유치한 범칙(犯

### 3.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수록곡의 정전화 양상

#### 1) 창작동요 전통의 계승

『노래모음』에서 전통적 창작동요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두루 알다시피 창작동요의 전통은 1920년대부터 전개된 어린이문화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1920년대 발간된 『어린이』(1923.3), 『신소년』(1923.10), 『아희생활』(1926.3), 『별나라』(1926.6) 등 어린이 잡지와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신문매체의 독자투고란을 통해 많은 동요가 발표되었다. 점차 작품이 늘어나자 작품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sup>26)</sup> 1929년 조선동요연구회가 편찬한 『조선동요선집』,<sup>27)</sup> 1932년 김기주가 편찬한 『조선신동요선집』<sup>28)</sup>도 그중 하나다. 개인 작품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품을 한데 묶은 선집(選集)으로, 전자에는 180여 곡이, 후자에는 그보다 많은 200여 편이 수록되었다.

이들 동요에 곡보를 붙인 동요집은 식민지시대부터 발간되었다. 흥난파는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29)과 하편(1933)을 각각 발간하였으며,<sup>29)</sup> 윤극영 『반달』(1926),<sup>30)</sup> 1929년 정순철 『갈넵피리』,<sup>31)</sup> 김성태 『새

則)과 <얼어 죽은 참새>의 선곡을 두고 신랄한 서평을 남겼다. 이진우, 「(서평)『어린이 노래책』」, 『문화일보』, 1947.4.3, 2면.

26) 실물을 확인할 수 없으나 『장미꽃』(1927, 장미사), 『가나리아의 노래』(1927, 등대사), 유기춘의 『소년소녀동요집』(1920), 문병찬의 『조선소년소녀동요집』(1926) 등이 발간되었다고 하며,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동요선집으로는 정창원의 『동요집』(1928),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1931), 박기혁의 『색진주』(1939), 임홍은의 『아기네동산』(1938) 등이 있다. 류덕제 엮음, 『김기주의 조선신동요선집』, 역락, 2020, 19-20쪽. 그밖에 1924년 엄필진이 엮어 발간한 『조선동요집』도 있다. 엄필진, 『조선동요집』, 창문사, 1924.

27) 조선동요연구협회 편, 『조선동요선집』, 박문서관, 1929.1.

28) 김기주, 『조선신동요선집』, 동광서점, 1932.

29) 흥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연악회, 1929; 『조선동요백곡집』 하편, 연악회, 1933.

30) 윤극영, 윤극영동요작곡집 『반달』, 파리아회, 1926. 최초의 창작동요곡집으로 간

야새야 과랑새야』(1934),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1938),<sup>32)</sup> 윤이상 『동요작곡집』 제1집(1938)<sup>33)</sup> 등이 꾸준히 발간되었다. 박태준은 『중중떼떼중』(1929), 『양양범버궁』(1931), 『뜸북새』(1932), 『물새발자욱』(1939)을 잇달아 발간하였다.<sup>34)</sup> 강신명은 『강신명동요 99곡』(1932)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주일학교 교재용 선집 『아동가요곡선삼백곡집』을 발간하였다.<sup>35)</sup> 윤석중의 동요집 『어깨동무』(1940)에도 악보가 일부 수록되었다.<sup>36)</sup>

작곡가들은 비단 신문매체에 발표된 동요만 노랫말로 취한 것은 아니었다. 홍난파는 『조선동요백곡집』을 준비하면서 노랫말을 공모하였다. 윤석중은 양정고보 재학 시절 홍난파로부터 동요를 달라는 엽서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홍난파를 만난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는 한 편 한 편 찬찬히 읽어 나가더니 별떡 일어나 곡을 한 곡 붙여오는 게 아닌가. ‘빠르기도 하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더니, 이미 마련 한 노래말 없는 곡조에 내 노래말을 구둣가게에 가서 만들어진 신을 신어보고 사듯, 기성곡에다 내 작품을 맞춰 넣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휘파람>이었다. 그 무렵의 동요는 매양 7·5조 넉줄짜리여서 미리 만든 곡에 글자 수를 맞추어 지어넣는 수도 있었는데, 찬송가 같은 외국곡에 그런 것이 많았다. 모르긴 해도 나의 <낮에 나온 반달>도 곡이 먼저 된 듯 싶었다.<sup>37)</sup>

주되고 있다.

31) 정순철, 『갈넙피리』, 문화서관, 1929.

32)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 경남노회중교교육부, 1938.10.17.

33) 윤이상, 『동요작곡집』 제1집, 광흥사, 1938.

34) 박태준, 『중중떼떼중』, 무영당서점, 1929; 『양양범버궁』, 무영당서점, 1931; 『뜸북새』, 아이생활사, 1932; 『물새발자욱』, 교문사, 1939. 손태룡, 『박태준의 작곡집 고찰』, 『음악문헌학』 3권, 2012, 10쪽.

35) 이 책은 1936년과 1938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록된 <주일학교 교가 No.4>와 구왕삼 작곡의 <조선의 꽃> 노랫말 때문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금서로 처분되어 1940년 동경에서 재발간했다.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176-177쪽. 필자는 1938년판을 참고하였다. 강신명 편,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집』, 평양: 농민생활사, 1938.10.

36) 윤석중, 동요집 『어깨동무』, 박문서관, 1940.7.

인용문에 따르면, 당시의 동요는 “7·5조 녀줄 짜리”로 패턴화되어 있었으며, 곡을 먼저 만들어놓고 노랫말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이때 외국곡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요집 발간의 전통은 식민지시대 말기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잠시 중단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해방기에 발간된 동요집으로는 아협동요연구소가 편찬한 『조선동요백곡선』 상권(1946),<sup>38)</sup> 윤복진 『초등용 가요곡집』(1946),<sup>39)</sup> 『박태현동요작곡집』 제2집(1947),<sup>40)</sup> 『박태준동요작곡집』(1949)<sup>41)</sup> 등이 있으며, 윤복진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1949)<sup>42)</sup>에도 일부 악보가 수록되었다.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상근의 『진달래』(1948)도 마산여중 학우회에서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김학성은 『노래모음』에 널리 알려진 창작동요 외 지역 작곡가의 창작동요를 수록하였다. 이 작품들은 서울에서 출판된 다른 어떤 책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지역음악인들의 작품은 유통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정전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김학성의 시도는 정전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해지는 강변>은 이 책이 발간될 당시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윤이상의 작품이다. 윤이상의 『동요작곡집』(1938) 제1집을 통해 발표되었으며,<sup>44)</sup> 경남음악교육연구회에서 편찬한 『중등가곡집』(1949)에도 수록되었다.<sup>45)</sup> <부슬비> 또한 당시 마산을 기반으로 부산에서도 활동 중이던 작곡가 이상근의 작품이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첫 작곡집 『진달래』(1948)

37)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58쪽.

38) 아협동요연구소 편, 『조선동요백곡선』 상권,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10.

39) 윤복진, 『초등용 가요곡집』, 파랑새사, 1946.

40) 박태현, 『박태현동요작곡집』 제2집, 국제음악문화사출판부, 1947.

41) 박태준, 『박태준 동요작곡집』, 음악사, 1949.5.20.

42) 윤복진, 윤복진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 아동예술원, 1949.8.25.

43) 『광고-이상근 지은 노랫집 “진달래”』, 『음악주보』 제61호, 1948.4.15, 4면.

44) 윤이상, 앞의 책, 24쪽.

45)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중등가곡집』, 1948, 5쪽. 김학성은 이 책의 편찬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작사자 최계락은 1930년 진주에서 태어난 문인이며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상근도 1940년 이 학교를 졸업하여 동문이지만 이상근은 1922년생으로 나이 차가 있어 함께 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근, 최계락, 정상규는 같은 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의령의 이극로, 마산의 이은상, 김용호, 이원수를 고려할 때 경남지역 연고성이 두드러진다.

『노래모음』에 윤복진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윤복진은 한국전쟁기 월북한 작가지만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성향은 좌파의 계급투쟁적 실천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조선문학건설본부 위원, 조선문학동맹 아동문학부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등 좌파 문학단체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철저한 현실비판이나 무계급성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월북을 두고 많은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sup>46)</sup> 김학성이 『노래모음』을 발간한 시점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이지만 미군정과 정부수립 이후 문단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학성이 선집을 내면서 윤복진의 작품을 여럿 수록한 까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첫째, 그만큼 창작동요계에서 윤복진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며, 둘째, 윤복진의 작품이 사회주의 이념과 계급성을 떠나 서정성과 민족정서를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즈음 그의 작품이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학성이 선곡한 윤복진의 곡은 <하모니카>, <기러기>, <물새발자욱>, <깜박깜박>, <동리의원>의 다섯 곡으로 계급투쟁과는 거리가 먼 서정적인 작품들이다.

<하모니카>는 윤석중의 동요로 오늘날에는 제목과 내용이 변경되어

46) 여기에 관해서는 정영진, 원종찬 등의 여러 연구가 있다. 류덕제는 윤복진의 전반적인 삶과 창작활동, 시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윤복진의 월북을 해방 후 변모된 문학관 및 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하였다. 류덕제,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호, 2015, 187-229쪽.

불린다. 원곡은 하모니카를 독차지한 작은오빠의 욕심 때문에 오빠가 없을 때 몰래 꺼내 붙어본다는 익살스러운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불리는 노래는 옥수수를 하모니카처럼 불고 노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 윤복진이 쓴 가사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제목과 내용이 교체된 것은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월북작가들의 작품을 일제히 지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편으로는 동심의 순수성이 강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학성은 윤복진의 원곡 가사를 수록하였으며, 작사자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기러기>는 오늘날 동요 <가을밤>, 가요 <절레꽃>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윤복진은 해방기에 발간한 자신의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1949)에 이 곡을 수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스물일곱 해 동안에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천여 편의 나의 동요에서 마흔네 편을 추려 모은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sup>48)</sup> 대체로 서정적인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귀여운 시절, 숨바꼭질의 시절, 외로운 시절, 자라나는 시절, 뻗어나는 시절, 유모어의 시절, 정다운 시절, 재미로운 시절, 푸른 시절”과 “새 동요곡”이라는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러기>는 어느 장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몹시 슬프고 애달픈 정서가 해방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집』에는 이 노래가 독창곡으로 실려있지만,<sup>49)</sup> 김학성은 이 노래를 2부 합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새 발자욱>은 윤복진의 『꽃초롱 별초롱』 중 제4장 자라나는 시절에 수록되었으며 1935년 작으로 기록하고 있다.<sup>50)</sup> 이 작품도 같은 운명을 맞아 오늘날 윤석중의 <물새알>로 불리고 있다. <깜박깜박>은 윤석

47) 이 곡의 변천과 변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손태룡, 『박태준의 작곡집 고찰』, 『음악문화학』 3집, 2012, 39-46쪽.

48) 윤복진, 앞의 책, 3쪽.

49) 강신명, 앞의 책, 113쪽.

50) 윤복진, 앞의 책, 47-48쪽.

중의 <둥글둥글>로 바뀌었다. <동리의원>의 작사는 “김귀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윤복진의 필명이다.<sup>51)</sup>

『노래모음』에는 윤복진 외에도 남월북작가의 작품이 여럿 수록되었다. 박영하, 엄홍섭, 박을송, 박세영, 신고송, 이극로 등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납북된 석송 김형원이 바로 그들이다. <봄날> 작사자는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요작가 박영하다. <진달래>의 작사자 엄홍섭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문인으로 경남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51년 월북하여 북한작가동맹 평양지부장과 중앙위원을 지냈지만, 1963년 무렵 숙청당한 것으로 추측된다.<sup>52)</sup> <어머니 가슴>의 작사자 박을송은 음악평론가로 월북하였다.<sup>53)</sup> 『조선동요선집』(1929)에 이 곡과 더불어 <구름>, <달밤>이 수록되었다.<sup>54)</sup> 단정 수립 후 문화예술계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들 남월북작가의 작품을 수록한 것은 당시의 정전 형성 논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작가의 월북 외 다른 이유로도 노랫말이나 곡조가 변경되었다. <산바람 강바람>은 원래 일본인 작곡가 코마츠 코스케[小松耕輔]가 작곡한 멜로디로 불렸으나,<sup>56)</sup> 여기에는 박태현이 새로 작곡한 악보가 수록되었다. 노래에서도 일본의 색채는 재빠르게 지워졌다고 볼 수 있다. <고추

51) 류덕제, 『윤복진의 필명 연구』, 『동화와 번역』 38집, 2019, 13-39쪽.

52)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1, 소명출판, 2008, 281-285쪽.

53) 민경찬 외 여럿, 『2010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130쪽.

54) 조선동요연구회, 앞의 책, 126-128쪽.

55) 문학독본 가운데 전쟁기에 발간한 『조선현대시선』에 월북, 재북, 입북 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단정 수립 이후 작동된 정전 형성의 논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 66집, 2014, 362-363쪽.

56) 식민지시대 발간된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집』에는 코마츠 코스케[小松耕輔]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강신명 편, 앞의 책, 103쪽.

먹고 맴맴>은 오늘날 <맴맴>으로 전해지는 노래다. 원래 제목은 <집 보는 아기 노래>며, 오늘날 “달래 먹고 맴맴”으로 알려진 부분은 “담배 먹고”로 되어 있다.<sup>57)</sup> 부모님이 불일 보러 간 사이 집을 보던 아이가 마당에 널린 고추와 담배를 먹고 매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담배”가 “달래”로 바뀐 것은 교육적 목적이나 동심의 순수성에 배치된다고 보아 수용과정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본다.<sup>58)</sup> 그런데 김학성의 『노래모음』에는 “담배”로 기재되어 있다. 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편곡을 하기도 한다. <할미꽃>의 원작곡자는 윤극영이며 4/4박자의 곡이다.<sup>59)</sup> 흥난과는 이를 2/4박자로 편곡하여 『조선동요백곡집』에 수록하였으며 김학성은 이를 따랐다. 한편, 유치원 교재집인 『표정유희창가집』 제2집에는 작곡가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윤극영의 원곡이 수록되었다.<sup>60)</sup>

김학성은 선곡을 위해 음반을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1)</sup> <봄날>은 박영하 작사, 박태철 작곡의 곡이다. 박영하의 작품 <비오는 저녁>은 일본 콜럼비아음반에 전하며,<sup>62)</sup> 박태철의 작품도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경에서 작곡을 전공한 박태철은 재동경조선음악가협회 선전부장으로 활동했으며,<sup>63)</sup> 『가요작곡집』(1934)을 발간하였다.<sup>64)</sup>

한편, 『노래모음』에 수록된 <하모니카>, <산바람 강바람>, <누가 누가 잠자나>, <낮에 나온 반달>, <물새 발자욱>, <작은별> 등은 이즈음 발간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음악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57) 박태준, 『박태준동요작곡집』, 음악사, 1949.5.20., 14쪽.

58) 김수경, 「근대 창작동요의 수용과 동심의 재구성」, 『청람어문교육』 40집, 2009, 371쪽.

59) 강신명, 앞의 책, 63쪽.

60) 차사백·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제2집, 중앙보육학교, 1936, 116쪽.

61) 당시 대형 음반회사에서는 신보 관련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콜럼비아레코드 신음보월보』, 콜럼비아레코드, 1934.

62)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 보고서, 2009, 231쪽.

63) 송방송, 위의 책, 244쪽.

64) 조암 박태철, 『가요작곡집』 제1집, 출판사 불명, 1934.



## 2) 새로운 노래의 창작과 국민만들기

해방기 초등학교의 음악교재는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간하였다. 1946년 『초등 노래책』 1~2학년 소용과 1948년 『초등 노래책』 1학년 소용부터 6학년 소용(전 6권)이 있다.<sup>65)</sup> 미군정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교육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교과서 발간은 시급한 과제였으며, 1946년 2개 학년씩 합해서 교과서를 발간하다가 1948년부터 각 학년별로 따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지역에서도 부교재 용도로 음악교재를 발간하였다. 부산에서는 1949년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가 『노래공부』 1~6(전 6권)을 발간했다. 이 교과서들에는 악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작사자나 작곡가를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교과서 집필에는 일선학교 교사들과 학무국 편수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음악과목에는 “현제명(음악학교 교장), 이홍렬(작곡가), 정세문(청계국민학교 교사)”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sup>66)</sup> 그런데 1948년에 발간한 『초등노래책』에는 표지에 ‘노래동무회’라 표기되어 있다. 윤석중의 회고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47년 12월 14일 명륜동 4가에 소재한 윤석중의 자택 사랑방에서 시작한 어린이들의 노래모임이다. 노래지도는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교사이자 동요작가 한인현, 반주는 창경국민학교 교사 김천이 맡았으며 윤극영, 정순철이 관여했다.<sup>67)</sup> 노래동무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 지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품은 뜻>

노래동무회는, 노래를 사랑하는 동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항상 새로운 노래를 지어, 바르게 불러, 널리 퍼뜨림으로써,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환하게, 즐겁게 만들겠습니다.

65) 군정청 문교부에서 1946년 『음악책 임시』(1~2학년), 『음악책 임시』(3~4학년), 『음악책 임시』(5~6학년)를 발간했다고 하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김기복, 앞의 논문, 2001, 52쪽.

66) 송덕수, 『광복교육 50년 1-미군정기편』, 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보사, 1996, 208-209쪽.

67) 한용희, 앞의 책, 103-104쪽.

<하는 일>

노래 지도(합창연습, 매주 일요일 낮 1시)

『노래동무』 발간

작품합평회, 음악교육연구회 개최

작품발표회, 가정음악회 개최

<지도위원>

작조 윤석중, 작곡 윤극영, 정순철, 지휘 한인현, 반주 김천<sup>68)</sup>

이를 종합해 볼 때,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간한 초등 음악교재 발간에는 현제명, 이흥렬, 윤석중, 윤극영, 그리고 정세문(청계국민학교), 한인현(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김천(창경국민학교) 등 음악교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해방기 이후에도 초등용 음악교과서 발간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음악교재에 수록된 악보에는 대체로 작사자, 작곡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필에 관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곡 또는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래모음』에 수록된 <어린 음악대><sup>69)</sup> <금실비 은실비><sup>70)</sup> <나는 잘해요><sup>71)</sup> <누가 제일 잘하나>, <스케팅><sup>72)</sup>, <어머니 사랑><sup>73)</sup> 등은 군정청 문교부가 발행한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다. 노래 제목에 드러난 “잘해요”, “제일 잘하나”와 같은 가치는 당시 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새로운 국민만들기(Nation-building)가 음악교과서를 통해서도 진행된 셈이다. 군정청 문교부의 교과서는 지역

68) 노래동무회 편, 『노래동무회 알림』, 『노래동무』 1, 노래동무회, 1948.6. (비매품)

69) 문교부, 『초등노래책』 1학년 소용, 1948.4, 31-32쪽.

70) 문교부, 『초등노래책』 3학년 소용, 1948.4, 32-33쪽. 이 노래는 노래동무회에서 불렀던 곡으로 추정된다. 김학성은 이 곡의 제목을 <은실비 금실비>로 잘못 기재하였다.

71) 문교부, 『초등노래책』 6학년 소용, 1948.4;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 『노래공부』 6, 1949.4, 12쪽.

72) 문교부, 『초등노래책』 4학년 소용, 1948.4

73) 문교부, 『초등노래책』 6학년 소용, 1948.4

에서 발간한 다른 음악교재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한편, 『노래모음』에는 나운영이 편찬한 『어린이노래책』 제1집(1946)에 수록된 23곡 가운데 14곡이 실렸다. <기러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달아 달아>, <강아지래요>, <집 보는 아기의 노래>, <설날>, <도레미파>, <고드름>, <누가 누가 잠자나>, <하모니카>, <반달>, <오빠 생각>, <문자보급가>, <클레멘틴>이 그것이며, 절반이 넘는 비중이다. 동경의 제국고등음악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나운영(1922~1993)은 1947년 과도정부 시기 초대 음악편수사로 활동했다.<sup>74)</sup> 그만큼 『어린이노래책』 제1집은 “문교부 편수국 교열, 조선어학회 감수”로 음악교재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였다. 이 책의 편수국 교열을 맡은 이는 조선어학회 한갑수다. 그는 맞춤법을 교열하되, <강아지래요>의 노랫말 “귀여웁다”와 <우리 아기 행진곡>의 “왜 울우”는 노래의 “그 맛”을 훼손할 수 있어 그대로 둔다고 밝혔다. 또 머리말은 편수국 박창해<sup>75)</sup>가 작성했다. 나운영이 1947년 음악편수사로 재직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당시 나운영의 입지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김학성과 나운영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학성은 식민지시대 말기 경성후생실내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잠시 활동하였으며, 이때 나운영이 첼로 주자로 함께 했다.<sup>76)</sup> 또 한국전쟁기인 1952년 12월, 나운영의 부인 유경손이 항서교회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항서교회는 식민지시대 김학성이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 지휘자로 활동했던 곳이

74) 나운영기념사업회,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운경음악출판사, 2013, 50쪽.

75) 1948년 국정교과서 『바둑이와 철수』의 저자이며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오새내·김양진, 『해방 후, 최초의 국정교과서 『바둑이와 철수』(박창해 저, 1948) 편찬의 국어학사적 맥락 연구』, 『우리어문연구』 49집, 2014, 283-316쪽.

76) 강태구, 『경성후생실내악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8권 0호, 2012, 30쪽. 이 글에는 “제금 김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김학성의 잘못으로 보인다. 또, 김학성의 유품 중 1944년 5월에 촬영한 사진에는 김학성과 더불어 정영재, 현재명, 정희석, 윤기선, 김학상(테너), 이흥렬, 김영애, 김원복, 고영희, 이금봉, 이광수, 나운영 등이 함께 찍혔다.

기도 하다. 나운영과 김학성은 기독교, 그리고 경성후생실내악단의 인연을 바탕으로 일정한 교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래모음』에서 눈에 띄는 작가는 홍은순(1917~2008)이다. 『노래모음』에는 홍은순이 작사한 노래 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차>, <엄마 생각>, <봄비>,<sup>77)</sup> <별나라>, <불조심>, <줄넘기>, <전선줄 정거장>, <구름>, <봄이 왔다고>가 그것이다. 그중 <불조심>은 1948년 서울시 소방국 제정 동요로 선정된 작품이다.<sup>78)</sup>

홍은순은 이화보육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의 옥성보육사범학교 연구과와 사범과에 진학했다. 아동교육, 아동문학, 아동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그곳에서 부속유치원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김영일, 이원수가 주도한 아동문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혜화유치원 주임교사,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 보육과장 겸 학생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sup>79)</sup> 홍은순의 경력이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점은 나운영 부부의 유아교육 활동과 연관된다. 나운영과 유경손은 해방 직후 임영신이 설립한 중앙여자전문학교<sup>80)</sup>에 나란히 전임교수로 취임한다. 이때 나운영은 보육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 님는 노래>(가사 윤석중), <어린이 노래>(가사 유경손) 등을 작곡했다.<sup>81)</sup> 홍은순과의 결합 역시 유아교육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운영은 유아를 위한 동요로 116곡을 남겼는데, 그중 <싼타크로스 할아버지>, <아기의 꿈>, <앞사귀>, <해님>의 4곡이 홍은순의 노랫말에 의한 것이다.<sup>82)</sup>

77) 『노래모음』에는 “홍순”이라 기재되었는데 홍은순으로 보인다. 김학성, 앞의 책, 12쪽.

78) 『서울시 소방국 제정 동요 불조심』, 『경향신문』, 1948.11.21, 3면.

79) 박상재, 『한국 유아문학의 대모 홍은순 작가·작품론』, 『아동문학평론』 제42권 제1호, 2017, 20-21쪽.

80) 중앙보육학교의 후신이자 중앙대학교의 전신이다.

81) 나운영, 앞의 책, 2013, 41-43쪽.

82) 작곡가 나운영의 생애와 작품 홈페이지 [http://www.launying.co.kr/work\\_07.html](http://www.launying.co.kr/work_07.html)(accessed 2020/06/30).

『노래모음』에 수록된 홍은순의 동요에 곡을 붙인 이들은 한샘,<sup>83)</sup> 박태현, 박태준, 김성태다. 박태현, 박태준, 김성태, 나운영 등은 당시 음악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며, 고려음악협회 회원으로 뜻을 함께하였다. 박태현(1907~1993)은 1936년 나운영의 중앙중학교 재학 시절 밴드부 코치로 사제의 연을 맺은 바 있으며,<sup>84)</sup> 김성태(1910~2012)는 동경고등음악학원 작곡과 출신으로 식민지시대 경성중앙방송국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지냈다.

그밖에 새로운 창작동요로 <새나라의 어린이>가 수록되었다. 해방 직후 대중들이 우리말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해방가요들이 작곡되었다면, 이 곡은 해방동요인 셈이다. 윤석중의 동요에 박태준이 곡을 붙였으며, 해방 후 처음 발간된 『어린이신문』 첫 면에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식민지시대 말기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노래를 하려 해도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이 들었다”고 한다.<sup>85)</sup>

### 3) 해방가요 · 의식곡의 되새김과 기념하기

해방 직후 음악단체와 음악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우리말로 부를 수 있는 해방가요 작곡에 몰두했으며,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새로운 국민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애국가요 또는 국민가요가 널리 창작되었다. 부산에서도 <새노래>(이중희, 금수현), <8월 15일>(윤인구, 금수현)이 널리 불렸다.<sup>86)</sup>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음악건설본부(조선음악건설본부-필자)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된 작품으로는 이흥렬씨의 <농군의 노래>, 김성태씨의 <독립행진

83) 한샘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84) 나운영, 앞의 책, 2013, 18쪽.

85) 한용희, 앞의 책, 95쪽.

86) 남영희, 앞의 논문, 151-155쪽.

곡>, <아침해 고을시고>, 나운영씨의 <건국의 노래> 등이었으니 새나라 국민운동에 좋은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된 작품으로는 고 채동선 선생의 교성곡 <조국>, 나운영씨의 교향곡 <3·1 혁명>, 애국가요곡으로 이흥렬씨의 <국민의 노래>, 윤용하씨의 <민족의 노래>, 박태현 작곡의 <애국의 노래>, 손봉 작곡의 <자유의 종>, 김생려 작곡의 <대한의 노래>, 이흥렬 작곡의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가>, 6대 국경일 노래로 정인보 작사 이흥렬 작곡의 <새해의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의 <3·1절 노래>, 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의 <광복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제헌절 노래>,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의 <개천절 노래>,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한글노래> (중략) 애국가요 및 국민가요가 많았다.<sup>87)</sup>

인용문은 해방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1955년 박태현이 남긴 기록이다. 박태현은 해방가요에 대해 논하면서 임화, 김순남과 같은 좌파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민항쟁가>, <해방의 노래> 등 김순남의 곡은 해방 당시 널리 유통되었지만, 단정수립 후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철저히 지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초 조선국민음악연구회에서는 해방가요 9곡을 엮어 『해방기념 애국가집』을 발간한다. 다음은 금호(琴湖)가 작성한 책의 머리말 내용이다.

오래동안 우리 음악은 왜족(倭族) 억압(抑壓) 아래 가진 꽃대접과 가진 학대로 말미아마 길을 필 새 없이 아주 고만 재지러져 버렸었다. 그렇나 천도(天道)가 무심하지 않았다. 어깨춤을 추며 우리 조국을 찾는 날 우리 노래도 찾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해방되는 날 우리의 음악도 해방되었다. 삼천만의 만세성(萬歲聲)이 그대로 환희(歡喜)의 교성곡(交聲曲)이 되어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의 땅과 하늘을 뒤집어 어플 듯이 울리우든 8월 15일! 이제 다시금 생각만 해도 피가 뛰여 노는 그때 격동기 속에서 세워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가맹 단체인 조선음악건설

87) 박태현, 『문화십년-음악(2)』, 『경향신문』, 1955.8.13, 4면.

본부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합작으로 많은 애국적 가곡이 제작되었다. 이 가곡은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음어(音語)로 엮은 민족가곡이다. 이 『애국가집』은 위에서 말한 가곡들의 뭉뚱을 골라 수보(收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좋은 가곡이 많이 있지만 연락(連絡)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넣지 못한 것은 썩 유감(遺憾)으로 생각하나 다음 제2집에 밀기로 한다. 1946년 2월 9일 금호(琴湖) 식(識).<sup>88)</sup>

인용문은 해방 직후의 문화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술활동은 일제의 폭압 아래 위축되어 있었지만 해방이 되자 곧 문화예술단체와 조직이 형성·결합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펼쳤다. 음악계에서도 교향곡처럼 들리는 “만세” 소리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생각과 말”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이 시기 창작된 수많은 해방가요들은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음어(音語)”로 표현한 노래들이었다. 『해방기념애국가집』의 수록곡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애국가>(미상, 안익태), <독립행진곡>(박태원, 김성태), <조선의 노래>(이흥, 나운영), <해방전사의 노래>(임화, 안기영), <축재해외조선군 개선거>(임학수, 이흥렬), <무궁화 피고피고>(윤복진, 박태준), <아침해고흥시고>(임학수, 김성태), <농군의 노래>(여상현, 이흥렬), <새나라 세우면서>(조남령, 안기영)

가사는 주로 문인들이 썼으며, 그중 임화, 임학수, 윤복진, 박태원, 여상현, 조남령은 남·월북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작곡가들은 안기영을 제외하면 대체로 해방 이후 음악계에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은 부류들이다. 금호(琴湖)는 작곡가 박태준의 호이므로 박태준을 중심으로 서로 “연락이 잘” 되는 친밀 작곡가 집단이라 볼 수 있다.<sup>89)</sup> 그런데 박태

88) 조선국민음악연구회 편, 『해방기념 애국가집』, 조선국민음악연구회, 1946.

89)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음악계에서 중심세력을 형성하였지만, 그중 안익태, 이흥렬, 김성태는 친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의 회고에 따르면, 해방기 음악단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 끝에 “순수한 민족진영의 음악인들은 총단결”하여 고려음악협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하며, 회원으로 “박경철, 채동선, 이흥렬, 김기우, 이유선, 정영재, 납치(된-필자) 안병소, 최봉진, 납치 박경희, 채선엽, 이애내, 이동일, 나운영, 한갑수, 박태준, 유경손, 서영모, 필자(박태현)”가 함께 했다고 한다.<sup>90)</sup> 즉 이흥렬, 나운영, 박태준, 박태현 등은 “순수한 민족진영” 음악인을 포방하면서 친밀집단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익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해방가요와 단정 수립 후 의식곡의 창작과 보급에도 결합하면서 새로운 음악권력을 형성했다. 이 시기에 발간한 음악교과서와 교재에도 이들의 작품이 빈번하게 수록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학성은 『해방기념 애국가집』에 수록된 <애국가>와 <독립행진곡>을 실었으며, 그밖에 <건국의 노래>(김태오, 나운영), <우리말 우리글로>(미상, 김성태), <한글노래>(이극로, 채동선)도 수록했다.

그 외 의식곡으로는 <삼일운동의 노래>(박종화, 김순애), <앞으로 나가자>(김용호, 박태준), <어린이 행진곡>(신영숙, 윤용하), <어린이날>(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선가선곡), <소년소녀 행진곡>(최선, 김형근), <응원가>(이원수, 김성태)가 수록되었다. 해방 직후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 단정수립 후 3·1절, 제헌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 “6대 기념일의 노래”처럼 새로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와 관련한 노래, 졸업식 노래 등을 새로 작곡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래모음』에 수록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가 “선가선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단체는 정홍교, 김억, 윤석중을 중심으로 식민지시대 말기 중단되었던 어린이날을 부활시키고자 결성한 단체로 보인다.

90) 박태현, 『문화십년-음악(1)』, 『경향신문』, 1955.8.12., 4면.



1946년 초순, 서울 서대문정 2정목(오궁굴)에 있던 어떤 음식점에 중국 북경에서 돌아온 정홍교(丁洪敎-해방 전 오월회와 어린이운동가)와 서울중앙방송국의 안서 김억(岸曙 金億-시인, 6·25때 납북됨)과 나, 이렇게 셋이 모여 ‘어린이날 다시 시작’을 의논했다. 일제당국의 집회 금지로 아홉 해 동안이나 그냥 넘긴 어린이날을 그해부터 부활시킨 것이다. (중략) 나는 ‘어린이 해방가’ 삼아 이 노래를 지었다. 곡은 안기영(安基永)에게 부탁했다(지금의 곡은 안기영이 월북해서 만주에서 귀국한 윤극영이 1948년 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어린이날은 원래 5월 1일이었으나, ‘메이데이’와 겹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모을 수 없어 ‘5월 첫 공일’로 바꿨던 것인데 해방 뒤 5월 첫 공일이 마침 5월 5일이어서 해마다 불박이로 이날을 어린이날로 확정,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노래를 제정하고 기념식을 올리기로 했다. (윤석중의 술화-필자)<sup>91)</sup>

인용문에 따르면, <어린이날> 노래는 원래 윤석중의 가사에 안기영이 곡을 붙였지만 안기영의 월북으로 윤극영이 다시 곡을 붙였다. 그러나 윤극영이 새로 곡을 붙인 시기와 안기영의 월북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윤석중이 제시한 노랫말은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로 시작하지만 김학성의 『노래모음』에 수록된 곡은 이와 다르다. 멜로디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곡의 기원을 찾기는 어렵다.

#### 4) 대중가곡의 재현과 정서의 소환

『노래모음』은 처음부터 절반 정도까지는 동요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중반 이후부터는 해방가요와 창작가곡, 외국곡의 비중이 높아진다. 전반부에는 대체로 창작동요집, 초등학교용 교과서와 부교재, 음반자료 등에서 선취하였다면, 후반부의 곡들은 주로 중등학교 음악교과서와 ‘세계명작’ 가곡집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창작가곡이 정전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영향이 크다. 해방기는 교육의 급격한 양적 증대와 더불어 시설

91)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98-99쪽.

과 물자, 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대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재개된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없어 식민지시대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학교 자체에서 등사본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의 편찬과 보급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문에 중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국어와 사회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검인정제도를 실시했다. 음악교과 역시 검인정 교재가 발간되었다. 최초로 발간되어 학교 현장에 가장 널리 유통된 중등음악교재는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임시중등음악교본』이다.<sup>92)</sup> 박용구는 『임시중등음악교본』 발간과 관련한 정황을 구술기록으로 남기고 있다.<sup>93)</sup> 그의 증언에 따르면, 교과서 편찬을 위해 30명 정도의 서울시내 음악교사가 모여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경기중학교 음악교사 최희남<sup>94)</sup>이다. 1부에는 국민가요, 2부는 민요와 간단한 외국곡, 3부는 합창곡 및 고학년 대상의 곡목, 그리고 음악 기초이론을 싣기로 하였으며, 수록할 곡목의 선곡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처음 원칙을 하나 세운 게 친일파는 그만두자. 새로 수록하자. 현재명 곡은 한 곡도 없어요. 그렇다고 김순남이 것두. 너무 그거한 것, 말하자면 임화 작사의 <남조선 형제여 잊지 말어라>나 <인민항쟁가> 같은 거 넣을 순 없으니까. (중략) 더러는 새로 발표된 걸 어느 선생이 갖고 와서 이거 어떠냐고 해서 넣게 된 거도 있구요. 교육기관이니까 우익으로 치우쳐도 안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중간적 입장에서 무난하게 만들자 했지요.<sup>95)</sup>

92)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임시중등음악교본』, 국제음악문화사, 1946. 5. 1.

93) 박용구, 『박용구, 한반도 르네상스의 기획자 1914년~』, 수류산방, 2011, 304-309쪽. 본문의 내용은 박용구의 구술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94) 식민지시대 재동경조선음악가협회에서 연주부장을 맡은 바 있다. 이때 재무부장은 박태현이다. 최희남은 이후 『중등음악교본』(1950, 금릉도서주식회사)을 편찬하였으며,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5) 박용구, 앞의 책, 307-309쪽.

인용문에 따르면, 이들은 선곡 과정에서 식민지시대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극단적 이념투쟁의 논리로부터의 단절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이 책에는 “친일파”로 거론된 현재명의 곡만 제외되었을 뿐 이흥렬, 김성태의 작품은 채택되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의 열망은 높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북 음악인들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1948년 이후 금서화되기도 했다. 『임시중등음악교본』에는 <독립행진곡>(박태원, 김성태), <한글노래>(이극로, 채동선), <건국의 노래>(김태오, 나운영) 등 해방가요와 식민지시대에 창작된 가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들은 “그때까지 많이 알려진 곡”이었으며, “잘 알려지고, 앞으로도 불려지면서 무난하리라는 곡”<sup>96)</sup>이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편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래모음』에 실린 창작가곡은 안기영 <꽃밭>, <그리운 강남>, <무궁화>, <물새>, 정사인 <고향 생각>, 박태준 <미풍>, 홍난파 <성불사의 밤>, <금강에 살으리랴다>, 그리고 <삼살개>이다. 이 노래들은 해방기에 발간된 여러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었다. 1920~1930년대 3권의 작곡집을 발간<sup>97)</sup>한 안기영의 곡은 4곡이 수록되었지만 월북함으로써 해방 이후에는 잊혀진 노래가 되었다. <무궁화>의 작사자 박세영도 월북작가다.<sup>98)</sup> <고향생각>은 <사향가> 또는 <내 고향을 리별하고(타향)>로 알려진 곡이며, 북한에서는 김일성 작품으로 선전되고 있다.<sup>99)</sup> 또 홍난파의 『통속창가집』(1916)에 실린 <추색(秋色)>은 가사는 다르지만 멜로디는 같다.<sup>100)</sup> 김학성은 여기에 작사·작곡가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96) 박용구, 위의 책, 309쪽.

97) 안기영, 『안기영 작곡집』 제1집, 낙양사음악출판부, 1929; 안기영, 『안기영작곡집』 제2집, 음악사, 1931; 안기영, 『안기영작곡집』 제3집, 음악사, 1936.

98)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1-196쪽.

99) 민경찬은 『통속창가집』의 발매 시기와 이 곡이 녹음된 음반 발매 시점을 근거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민경찬, 『자료-홍난파의 『통속창가집』』, 『낭만음악』 38호, 1998, 227-233쪽.

100) 홍영후, 『통속창가집』, 박문서관, 1916, 12쪽. 근대서지 편집부, 『영인-홍난파

이 곡은 정사인 작사·작곡으로 간주된다.<sup>101)</sup> 이은상의 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인 <미풍>은 1922년 작곡되었으며,<sup>102)</sup> 박태준의 『가곡집부박태준작곡집』(1927)<sup>103)</sup>에 수록되었다.<sup>104)</sup> <삼살개>는 해방기 부산에서 자주 불렸던 <맹꽁이와 삼살개>다.<sup>105)</sup> 이들 창작 가곡을 “초등용” 교재에 수록한 이유는 널리 알려진 곡이며, 정서적으로도 교육적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래모음』에도 친일파로 거론된 현제명, 극단적 좌파로 거론된 김순남의 작품은 수록하지 않았다.

##### 5) 외국노래와 서구 지향의 번역

서양노래들은 찬송가의 전래와 더불어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1920년대부터는 ‘세계명곡’이라는 제목을 내세워 선집이 발행되었다. 악우회 『세계명곡통속창가집』(1926), 강의영 『세계유행명곡집』(1926),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집(1935), 독고선 『태서명곡집』(1935) 등이 대표적이다.<sup>106)</sup> 해방기에도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집(1948), 이승학 『세계명가백곡집』(1949) 등이 발간되었으며, 창작가곡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음악교과서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노래모음』에는 무려 21곡의 외국곡이 수록되었다. 해방기 음악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었지만, 대부분 식민지시대부터 불리던 곡이다. 가령,

저서 4종, 『근대서지』 10호, 2014, 821쪽.

101) 민경찬, 앞의 논문, 232쪽.

102) 손태룡, 앞의 논문, 31쪽.

103) 박태준, 『가곡집부박태준작곡집』, 대구서적조합, 1927.

104) 손태룡, 앞의 논문, 19쪽. 여기에 유명한 <사우(思友)>도 수록되었다.

105) 남영희, 앞의 논문, 150-151쪽. 박태준의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106) 악우회, 『세계명곡통속창가집』, 영창서관, 1926; 강의영, 『세계유행명곡집』, 영창서관, 1926;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독고선 편, 『태서명곡집』, 화신서적부, 1935; 국민음악연구회, 『세계독창명곡집』, 1948; 현제명 편, 『세계명작 가곡집』 제1집, 한성도서, 1948.1.20.; 이승학 편, 『세계명가백곡집』, 국제문예사, 1949.5.9.

<피꼬리>는 『통속창가집』(1916),<sup>107)</sup> <즐거운 나의 집><sup>108)</sup>과 <시골 음악대><sup>109)</sup>는 홍난파 『도레미창가집』(1919), <종달새>는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집』(1938)<sup>110)</sup>에 각각 수록되었다. <즐거운 나의 집>은 『도레미창가집』에 <나의 집>으로 수록되었는데, “즐-거운 마당에 우리 방향하여도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되지 않는 오두막집-필자) 내집 갓흔 곳 또 업도다”로 시작하여 오늘날 불리는 가사와는 다소 다르다. 『노래모음』에 수록된 가사는 오늘날 가사와 비교적 동일하다. 이 가사는 김재인이 붙인 것으로, 김재인은 『임시중등음악교본』 발간에 참여했던 박은용과 함께 이화여고에 재직했다.<sup>111)</sup> <시골음악대>의 멜로디는 베버(C.M. von Weber)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Der Freischütz)』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Der Jägerchor)>에서 가져왔다. <기쁨의 노래>는 『임시중등음악교본』에 <환희의 송가>로 되어 있으며 베토벤(L.v. Beethoven)의 교향곡 제9번 중 ‘환희의 송가(Ode an die Freude)’ 멜로디에 붙인 곡이다. 가사는 화암(華岩)이 붙였는데 이는 박용구의 아호다.<sup>112)</sup> <개선행진곡>은 베르디(G.Verdi)의 오페라 『아이다(Aida)』의 <개선행진곡(Triumphal March)> 멜로디에 붙인 곡이다. 모차르트 <자장가>, <로렐라이>, 슈베르트 <자장가>는 중등 음악교과서에 특히 많이 수록된 곡들이다. <고향의 어머니>는 오드웨이(J.P.Ordway)의 <Dreaming of home and mother>이며, <여수>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불어라 봄바람>은 찬송가에도 쓰였던 스피لمان(J.E.Spilman)의 <고요히 흐르는 앵튼 강(Flow Gently, Sweet Afton)>이다. <망아

107) 홍영후, 앞의 책, 2쪽. 근대서지 편집부, 앞의 자료, 816쪽.

108) 홍영후, 『도레미창가집』, 광익서점, 1919, 14쪽. 근대서지 편집부, 앞의 자료, 796쪽.

109) 제목은 <시골 음악대>이다. 홍영후, 위의 책, 16쪽. 근대서지 편집부, 앞의 자료, 797쪽.

110) 강신명, 앞의 책, 62쪽.

111) 박용구, 앞의 책, 307쪽.

112) 위의 책, 307쪽.

지>와 <수남이 바보>는 엘리엇(J.W.Elliot, 1833~1915)의 곡이다. 엘리엇은 서양의 마더 구스(Mother Goose) 리듬 수집가로, 이 곡들은 유치원 창가집을 참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화유치원의 브라운리가 창간한 『유희창가집』에는 마더 구스 라임으로 된 곡이 여럿 수록되었다.<sup>113)</sup>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이란 근대로 나아가는 열쇠이자 창이었다. 메이지시대 일본은 문명개화론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다. 노래는 메이지의 국가만들기와 국민만들기에 필요한 장치를 의식 속으로 싣고 나르는 전령이었으며, 학교의 창가집과 의식창가들은 이를 더욱 체계화했다. 근대 일본이 최초로 발간한 음악교과서는 『소학창가집』 초편(1881), 『소학창가집』 2편(1883), 『소학창가집』 3편(1884)이며, 모두 91곡의 노래가 수록되었다.<sup>114)</sup> 이 노래들은 “태서(泰西) 명곡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 것, 아악이나 속악으로부터 채용된 것, 새로 창작된 것”인데,<sup>115)</sup> 멜로디는 대다수가 찬송가를 비롯한 서양노래에서 취했다. 찬송가와 서양노래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담론은 버려지고 멜로디만 초역(抄譯)된 셈이며, 이 초역된 노래들은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했다.

식민지 조선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중역(重譯)된 노래가 창가교과서를 통해 유입되었다. 찬송가와 선교사들이 전한 서양노래는 일본을 경유하지 않은 번역이었으며, 애국창가와 계몽창가로 번역되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한편 학교와 병원, 전차, 전기 등 물화된 형태의 근대성은 서구화를 곧 근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식민지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은 근대화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이어졌으

113) 허지연, 『“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유희창가집』을 통해 본 식민지 경성의 단면』, 『음악학』 19집, 2011, 37-72쪽; 박혜리나, 『유치원 유희창가 연구』, 민속원, 2014.

114) 박선희, 『메이지시대의 창가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28쪽.

115) 박진수, 『근대 일본의 번역창가와 문화내셔널리즘』, 『아시아문화연구』 33집, 2014, 78쪽.

며, 서구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서양노래는 근대의 표상이자 근대성을 매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해방 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미군정이 들어서자 서구화, 더 정확히 미국화는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는 요건이었으며, 서양노래는 미국화에 대한 열망을 내재화하고 표출하도록 만들었다. 식민지시대와 해방기를 거치는 동안 서양노래의 의미는 다양한 층위의 중첩된 번역을 통해 혼종적·잡종적으로 구축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서양노래란 단순히 음악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수많은 층위의 욕망과 오역, 중역들이 노래의 날개를 타고 우리의 의식과 정체성을 지배했으며, 그 번역된 선율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 4. 나가며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은 부산음악인 김학성이 1950년 펴낸 노래집이다. 새 나라를 건설할 역군들인 책의 독자들이 씩씩하고 힘차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 예술성을 지향하는 대신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음악교양 확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 김학성은 100곡의 수록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를 1920년대부터 이어 온 전통적인 창작동요, 해방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요, 해방가요와 의식곡, 창작가곡, 우리말 가사를 붙인 외국곡, 전래동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처럼 폭넓은 종류의 노래를 고루 수록함으로써 노래의 역사와 노래의 정전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노래모음』의 수록곡을 통해 노래는 동심의 회복, 새로운 국가와 국민만들기, 역사의 되새김과 기념하기, 민족적 정서의 소환, 서구지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소비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는 어른이 된 다음까지 생생하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정서와 미적 감각의 원천으로 일생 동안 유지되기도 한다. 구조화된 노래는 의식과 정서를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체제는 노래를 적극 활용했다. 노래를 비롯한 문학과 예술의 정전화를 더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식민지시대 근대와 미군정,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굴곡진 역사의 흐름 속에 노래가 정전화되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상이 될 만한 텍스트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시대 창가와 해방기에 발간한 몇 권의 음악교과서를 제외하면 악보가 있는 노래의 정전화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래의 정전화는 국가체제와 사회가 변화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났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국주의 이념 체화와 신민화를 위한 노래만 정전이 될 수 있었다. 해방이 되자 우리말로 부를 수 있는 해방가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으며, 새로운 민족국가건설과 국민만들기에 필요한 새로운 동요와 의식곡, 기념곡들은 새로운 정전의 지위를 확보했다. 아울러 친일 행위자가 작곡한 노래를 정전의 후보에서 배제하려는 열망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에서 친일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은 철저하지 못했다. 노래에서 친일 청산을 체계적으로 주도할 주체가 없었을 뿐더러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는 새로운 음악권력층을 형성하게 하고 음악사회를 급격하게 재편했다.

한편, 이데올로기 간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납월북 작가의 노래들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워졌다. 계급주의적 동요나 좌파 작곡가의 해방가요, 가곡 등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당시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널리 사랑받았던 윤복진의 작품들은 자취를 감추거나 윤석중의 다른 노랫말로 대체되었다. 납월북 작가들의 노래는 1980년대 이후 해금되었지만 동요의 자리는 이미 대중가요나 팝이 차지하여 널리 향유



될 기회를 회복하지 못했다. 1910년대부터 불렀던 외국의 노래들과 클래식 작곡가의 유명 선율에 가사를 붙인 곡, 그리고 자장가는 해방기에도 여전히 정전의 지위를 누렸다. 근대화와 미국화에 대한 지향이 서양음악과 서양노래에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중 ‘환희의 송가’에 붙인 노래는 해방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정전의 지위를 구축했다.

정전은 완전성을 지닌 모범으로 간주되며, 정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구성된다. 따라서 제도에 의해 보호되며 지속성과 영속성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제껏 노래에 정전의 지위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이며 그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정전화된 노래는 우리의 정서와 의식에 어떻게 내면화하여 작용하고 있는지 정전 형성의 이데올로기와 정전 재편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구조화된 노래들의 탈구조화, 탈역사화는 철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다.

## 참고문헌

### 가. 일차자료

#### <신문기사>

- 『(광고)삼도시(三都市) 순회 부산관현악단 대연주회』, 『대중신문』, 1948.6.9, 1면.  
『(광고)이상근 지은 노랫집 “진달래”』, 『음악주보』 제61호, 1948.4.15., 4면.  
『문화소식-향토예술경연 래월 8일 덕수궁서』, 『한성일보』, 1946.10.30, 2면.  
『부산현악사중주단 결성』, 『문예신문』 53호, 1948.4.  
『음악신간 소개』, 『음악주보』 제57호, 1948.2.1, 4면.  
『향토예술문화협회』, 『자유신문』, 1946.10.22., 2면.  
박태현, 『문화십년-음악(1)』, 『경향신문』, 1955.8.12, 4면.  
\_\_\_\_\_, 『문화십년-음악(2)』, 『경향신문』, 1955.8.13, 4면.  
이건우, 『(서평)『어린이 노래책』』, 『문화일보』, 1947.4.3, 2면.

#### <초·중등 음악교재>

- 경남음악교육연구회 편, 『중등가곡집』, 전음사, 1948.12.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 『노래공부』 2, 삼공출판사, 1949.4.  
\_\_\_\_\_, 『노래공부』 5, 삼공출판사, 1949.4.  
\_\_\_\_\_, 『노래공부』 6, 삼공출판사, 1949.4.  
계정식,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교재연구사, 1947.9.25.  
\_\_\_\_\_,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교회음악연구회, 1946.12.5.  
교육음악연구협회, 『중학음악교본』 제2권, 국민음악연구회, 1948.8.10.  
국민음악연구회 편,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국민음악연구회, 1950.5.10.  
\_\_\_\_\_,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 국민음악연구회, 1950.5.10.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 국민음악연구회, 1949.7.25.  
군정청 문교부, 『초등노래책』 제1·2학년 소용, 1946.  
김신덕 편, 『여자중등음악교본』 상,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1947.3.31.

- \_\_\_\_\_, 『여자중등음악교본』 중, 금릉도서문구주식회사, 1947.4.5.  
 \_\_\_\_\_, 『여자중등음악교본』 하, 금릉도서문구주식회사, 1947.4.5.  
 나운영 편, 『어린이노래책』 제1집, 광문사, 1946.  
 문교부, 『초등노래책』 1학년 소용, 1948.4.  
 \_\_\_\_\_, 『초등노래책』 2학년 소용, 1948.4.  
 \_\_\_\_\_, 『초등노래책』 3학년 소용, 1948.4.  
 오창진 편, 『중등음악』, 서울문화당, 1947.10.20.  
 이승학 편, 『중등음악교본』 2권, 국제문예사, 1948.8.30.  
 \_\_\_\_\_, 『중등음악교본』 3권, 국제문예사, 1948.8.30.  
 전국교육음악협회 편, 『중학음악교본』, 국민음악연구회, 1947.5.30.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임시중등음악교본』, 국제음악문화사, 1946.5.1.  
 최희남 편, 『중등음악교본』 2, 금릉도서주식회사, 1950.4.29.

#### <노래집>

- 강신명 편,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집』, 평양: 농민생활사, 1938.10.  
 김기주, 『조선신동요선집』, 동광서점, 1932.  
 노래동무회 편, 『노래동무』 1, 노래동무회, 1948.6.  
 박태준, 『박태준동요작곡집』, 음악사, 1949.5.20.  
 부내운 편, 『유희창가집』, 이화유치원, 1930.11.25.  
 아협동요연구소 편, 『조선동요백곡선』 상권,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10.  
 윤복진, 『꽃초롱 별초롱』, 아동예술원, 1949.8.25.  
 윤석중, 『어깨동무』, 박문서관, 1940.7.  
 \_\_\_\_\_, 『윤석중 동요집』, 신구서림, 1932.7.  
 윤이상, 『동요작곡집』 제1집, 광흥사, 1938.  
 이승학 편, 『세계명가백곡집』, 국제문예사, 1949.5.9.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 경남노회종교교육부, 1938.10.17.  
 조선국민음악연구회 편, 『해방기념 애국가집』, 조선국민음악연구회, 1946.  
 조선동요연구협회 편, 『조선동요선집』, 박문서관, 1929.

- 차사백 · 이영보 편, 『표정유희창가집』 제1집, 중앙보육학교, 1936.3.20.  
 \_\_\_\_\_, 『표정유희창가집』 제2집, 중앙보육학교, 1936.7.26.  
 \_\_\_\_\_, 『표정유희창가집』 제3집, 중앙보육학교, 1937.7.24.  
 푸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중앙인서관, 1931.3.10.  
 현제명 편, 『세계명작가곡집』 제1집, 한성도서, 1948.1.20.  
 홍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연악회, 1929.  
 \_\_\_\_\_, 『조선동요백곡집』 하편, 연악회, 1933.  
 홍영후, 『도레미창가집』, 광익서점, 1919.  
 \_\_\_\_\_, 『통속창가집』, 박문서관, 1916.

#### 나. 단행본

- 고규진, 『문학정전』,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1, 소명출판, 2008.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김순전 외 여럿, 『제국의 식민지 창가-일제강점기 <창가>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2014.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1.  
 나운영기념사업회,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운경음악출판사, 2013.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류덕제 편, 『김기주의 조선신동요선집』, 역락, 2020.  
 류덕희 · 고성휘, 『한국동요발달사』, 한성음악출판사, 1996.  
 민경찬 외 여럿, 『2010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박선희, 『메이지시대의 창가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박혜리나, 『유치원 유희창가 연구』, 민속원, 2014.  
 송덕수, 『광복교육 50년 1-미군정기편』, 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보사, 1996.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 보고서, 2009.  
 이대의, 『나와 김인정 교과서』, 중앙출판공사, 2002.

- 이순옥,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 한국예술종합학교연구소 편,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 한용희, 『창작동요 80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2004.
- 홍난파, 『조선동요백곡집』, 대학당, 1991.10. (난파기념사업회 편, 영인본)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18.

#### 다. 논문

- 장태구, 「경성후생실내악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8권 0호, 2012, 5-54쪽.
- 권혜근,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중등음악교본』 1, 『중등음악교본』 2의 해제」, 『근대서지』 제7호, 2013, 166-177쪽.
- 근대서지 편집부, 「영인-홍난파 저서 4종」, 『근대서지』 10호, 2014, 753-824쪽.
- 김기복,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목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수경, 「근대 창작동요의 수용과 동심의 재구성」, 『청람어문교육』 40집, 2009, 361-402쪽.
-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21.
- 류덕제, 「윤복진의 필명 연구」, 『동화와 번역』 38집, 2019, 13-39쪽.
- 민경찬, 「(자료) 홍난파의 『통속창가집』」, 『낭만음악』 38호, 1998, 225-234쪽.
-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프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8호, 2003, 201-232쪽.
- 민경찬, 「한국 근대음악과 ‘고향」, 『한국문학연구』 30집, 2006, 75-99쪽.
- 박상재, 「한국 유아문학의 대모 홍은순 작가·작품론」, 『아동문학평론』 제42권 제1호, 2017, 20-42쪽.
- 박진수, 「근대 일본의 번역창가와 문화내셔널리즘」, 『아시아문화연구』 33집, 2014, 73-97쪽.

- 손태룡, 「박태준의 작곡집 고찰」, 『음악문헌학』 3집, 2012, 9-74쪽.
- 신용하,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 운동」, 『한국학보』 3집, 2005, 95-130쪽.
- 오새내·김양진, 「해방 후, 최초의 국정교과서 『바둑이와 철수』(박창해 지, 1948) 편찬의 국어학사적 맥락 연구」, 『우리어문연구』 49집, 2014, 283-316쪽.
- 이경분,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해제」, 『근대서지』 제16호, 2017, 340-348쪽.
- 이순옥,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37집, 2004, 243-268쪽.
-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한국문학논총』 제66집, 2014, 361-391쪽.
- 이유로, 「대구 발행 『중등 음악교과서』 해제」, 『근대서지』 제19호, 2019, 323-334쪽.
- 전송배, 「아동잡지 『어린이』와 『赤い鳥』 동요의 비교와 어린이 동요의 전개 양상」,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진현, 「1920년대 『별나라』 동요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집, 2015, 105-141쪽.
- 최윤실, 「프롤레타리아 동요의 이론과 노래에 관한 소고」, 『음악과 문화』 39집, 2018, 135-165쪽.
- 허지연, 「“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유희창가집』을 통해 본 식민지 경성의 단면」, 『음악학』 19집, 2011, 37-72쪽.

<Abstract>

Kim Hak-Sung's *100 Songs Collec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anonization of Songs in the Liberation  
Period

Nam, Young-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format of *100 Songs Collec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blished in 1950 by Kim Hak-Sung, a Busan musician, and to examine the aspect of canonization of songs through analysis of the songs. To this end, 21 songbooks published from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o the liberation period and 18 music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ere empirically compared and reviewed. *100 Song Collection* is valuable in that it is a substance that visually shows the capabilities of Busan music socie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that it contains unknown songs by local composers such as Yun Isang and Lee Sang-geun. In addition, it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music education in the region in that it was composed so that various songs could be sung in an easy and fun way instead of oriented towards artistry. The songs included were divided into traditional creative nursery rhymes, creative nursery rhymes after liberation, liberation songs and ritual songs, creative songs, foreign

---

\* Pusan National University.

songs, and traditional nursery rhym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ongs were created and enjoyed according to the values of each era: restoration of children's hearts, creation of a new nation and people, reflection and commemoration of history, summoning of national emotions, and western orientation. Countries and societies in each era actively used songs to structure consciousness and emotions. In this process, new social values and meanings are constructed through canonized songs. In this respect,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anonical reflection could be suggested.

Key Words: Kim Hak-Sung, Busan, Liberation Period, *100 Songs Collec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on, Canonization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20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20일